



한다. 200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증가, 5월의 대통령선거, 11월의 총선 이전의 정치적 긴장상태 발생 가능성 등으로 향후 6~12개월 기간동안 추가적인 환율불안 현상이 예견된다. 그 결과, 리라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006년 중 연평균 1.43리라에서 2007년 중 1.53리라로 상승하여 리라화는 약세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5~6월의 금융시장 불안의 주된 요인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누적, 단기

외채 중심의 취약한 외채구조, IMF의 대기성차관 이행실적 부진 및 선진권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2007년에 들어 리라화의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중반의 금융위기 유발 요인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유동성위기가 재현될 경우 터키 등 경제구조가 취약한 국가가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VIII. 베트남의 경제전망

1. 2007년도 경제 전망

가. 고도 성장세 지속

사회주의공화국인 베트남은 1986년 대외개방 정책인 도이마이(刷新)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2001년에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제2위 수출산업인 섬유 및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이 3년 연속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소매, 금융, 통신분야의 민간부문이 확대된 데 힘입어 8.4%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2006년에는 고유가 지속과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그동안 퀴터제한을 받아오던 베트남 섬유류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등으로 섬유산업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7.8%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에도 민간소비와 고정투자의 확대로 7%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활황에 힘입어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의 중심이 종래의 호치민 중심 남부지역에서 하노이, 하이퐁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호황에 따른 세수확대와 원유수출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는 무난히 정부목표 범위에 들어왔다. 향후 재정수지는 국내 개발



<표 VIII-1>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e	2007 ^f
경 제 성 장 률	7.3	7.7	8.5	7.8	7.1
재정수지 / GDP	-2.0	-1.4	-1.7	-2.0	-2.7
소비자물가상승률	3.1	7.8	8.3	7.5	5.1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7. 1.

수요 확대로 인한 지출 증대, 금융개혁 추진에 따른 정부부담 증가, 복지예산 확대⁸⁾ 등으로 점차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세제를 개혁하고 밀수 및 조세 회피자들을 파악하는 등 세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2006년부터 축소되기 시작한 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2008년까지 철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베트남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물가지수 구성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과 석유 제품의 소매가격이 상승하면서 2005년에는 8.5%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2006년에는 고유가 지속과 국내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인플레 억제의지로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인플레 억제를 위해 2003년 3월 이후 변동이 없었던 동(dong)화 예금에 대한 기준금리를 2005년 2월

7.8%(기존금리 대비 0.3% 포인트 상승)로 인상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다시 8.25%로 인상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 상품 및 경상수지 악화 전망

2005년에는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수요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확대와 전체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경상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흑자로 전환되었다. 2006년에는 다자간섬유협정(MFA) 종료에 따른 섬유수출 경쟁 심화, AFTA 진행에 의한 수입 확대, 국내 내수시장의 호조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수요 증대 등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량 증가, WTO 가입 기대에 따른 섬유부문의 수출증가 등으로 상품수지가 소거의 균형수준에 접근하고 경상수지 흑

8) 베트남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지출 규모는 전체 재정지출의 4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교육비(18%), 정부보조금(12.6%) 등임.



<표 VIII-2>

베트남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e	2007 ^f
경 상 수 지	-1,931	-957	217	346	-800
(경상수지/GDP)	(-4.9)	(-2.1)	(0.4)	(0.5)	(-1.2)
상 품 수 지	-2,580	-2,287	-839	-66	-900
수 출	20,149	26,485	32,442	40,768	48,300
수 입	22,730	28,772	33,281	40,834	49,200
FDI 유 입 액	1,450	1,610	1,890	2,850	3,100
외 환 보 유 액	6,224	7,042	9,051	11,315	..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7. 1.

자는 다소 확대되었다.

금년에는 베트남의 WTO 가입 발효와 미국 정부의 대 베트남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로 섬유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확대가 기대되나, EU의 베트남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수출액 감소,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계류 및 중간재의 수입급증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의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및 대외원조자금 유입확대와 함께 베트남 해외교포의 송금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해외교포로부터의 송금이 2005년에 4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비공식적인 송금까지 포함할 경우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베트남은 2006년 7월, 민간경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그동안의 외국인투자법과 국내투자법을 폐지하고 통일된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철폐하였다. 또한, 기업법도 개정하여 보다 시장경제적인 기업체⁹를 갖추게 되었다.

베트남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및 경제개혁정책 추진으로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도 크게 늘고 있다. 2006년 11월말 누적기준 투자

9) 모든 투자법인 설립 시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개인회사 등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표 VIII-3>

베트남의 주요 경제 약사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내 용
1986년	-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마이(刷新)정책 채택, 개방·개혁 실시
1992년	- 신헌법채택(4월), 한국과 국교 수립(12월)
1994년	- 미국, 대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2월)
1995년	- ASEAN 가입(7월), 미국과 국교정상화(8월)
1998년 11월	- APEC 가입
2001년 11월	-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2006년 11월	- WTO 가입 및 APEC 개최
2006년 12월	- 미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

승인액은 6,764건에 59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유입액도 287 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6년에 한국은 200개 프로젝트에 약 22억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말 기준 한국의 대 베트남 누적 투자승인액이 73억 달러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유입액은 26억 달러에 그쳐, 베트남 정부와 우리기업간 투자실행 여부에 대해 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실제로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 진출기업에 대해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시행착오와 마찰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외국인투자를 형태별로 보면 전체 승인액의 63%가 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공업지대 및 수출가공지대로의 투자가 1/3을 차지하고 있어 외

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주요 경제 이슈

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베트남은 EU, 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미국 등 양자 협상 대상국인 28 개국과 WTO 가입의 전제조건인 양자협상을 이미 타결하는 등 2006년까지 정식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 준비를 착실하게 해 왔다. 특히 2005년 5월 14일 베트남 WTO 가입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미국과의 양자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2006년 가입 가능성 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7일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베트남의 WTO 가입을 반대 없이 승인하였고, 베트남 국회가 지난 1월 11일 이를 비준함으



로써 정식으로 가입이 발효되었다. WTO 가입으로 베트남은 본격적인 신규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어 향후 베트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WTO 가입으로 수출보조금 축소, 수입관세 인하 등 의무도 부여되었다. 베트남은 섬유, 신발 등 경쟁력 있는 업종의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이들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폐지해야하고, 보조금 축소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의 투자 증대에 따른 베트남 노동력 및 토지수요 증가로 임금과, 토지 관련 비용 상승 등이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투자여건은 오히려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이 대외경쟁력을 가진 섬유산업을 제외한 금융, 통신, 서비스 등 선진국에 대해 열위에 있는 분야에서는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미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

2006년 12월 9일 미 하원은 베트남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¹⁰ 안건을 상정해 찬성 212표,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고, 뒤이어 상원도 찬성 79표, 반대 9표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종전 22년 만인 지난 1995년 정식 수교한 양국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모든 제약을 풀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안건은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¹¹되고 있다는 이유로 미 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2006년 11월 13일 베트남의 PNTR 승인 안건을 긴급 상정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혀왔으며, 결국 미 의회의 PNTR 승인을 얻음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 항구적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란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인 ‘정상무역관계(NTR)’를 영구적으로 맺는 것으로 NTR은 미국이 교역국들에 낮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전의 최혜국(MFN) 대우에 해당하는 개념임. NTR 대우국은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다른 나라와 똑같이 낮은 관세혜택을 받게 됨.

11) 2006년 1~8월간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적자 규모만 49억 달러에 이룸.



< 참고문현 >

1. 손승호, “대 베트남 종합진출전략이 필요한 때”, 내일신문, 2007.1.
2.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3. _____,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4. _____, “인도네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5. BBC News, ‘Profile: Umaru Yar’Adua’, 2006.12.
6. Economist, ‘The next president, perhaps?’, 2006. 12.
7. CEPAL,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4. 2006”, 2006.12.
8. EIU, Country Report-Mexico, 각년호. EIU, Country Report-Nigeria. 2007. 1
9. IMF, IFS.
10. ___, “Mexico: Staff Report for the 2006 Article IV Consultation”, 2006.9.
11. ___, World Economic Outlook, 2006. 9.
12. Ministry of Mexico, Informe Semanal del Vocero 각호.
13. Reuters, ‘Candidate wants to squash health rumors’, 2007. 1.
14.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7, 2006. 11.
15. www.atimes.com
16. www.boi.gov.ph
17. www.bkpm.go.id
18. www.bps.go.id
19. www.bsp.gov.ph
20. www.eiu.com
21. www.globalinsight.com
22. www.kita.net
23. www.kotra.or.kr
24. www.viewswire.com